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6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3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8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운주사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운주사	
5	아비담마길라잡이(1)아비담맛타상가하*전정판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책세상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은…"살아있어서 고맙다"



바람에게도 고맙다
김재진 지음
김영사 펴냄/1만 5800원



▲저자 **김재진**은?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같은 해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40년이 넘는 시간 글을 썼다. 글을 쓰면서도 문단과는 멀리 있고,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과는 거리를 둔 은둔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그는 우연히 듣게 된 첼로 소리에 끌려 첼리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젊은 시절 방송사 PD로 일하며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돌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며 인생의 신산(辛酸)을 겪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갑자기 전시회를 열고, 첫 전시회의 그림이 솔드 아웃 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산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장편소설 〈하늘로 가는 강〉 어른을 위한 동화 〈잠깐의 생〉 〈나무가 꾸는 꿈〉 〈엄마 냄새〉 산문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치유는 너다〉 등을 펴냈다. 현재 파주 교하에 있는 작업실 '민들레 행성'에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을 향해 걷는 시인 김재진. 자신의 그림 속 달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처럼 때로는 시로, 때로는 소설로, 때로는 그림으로 삶의 슬픔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그려내어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그가, 자신을 위로해준 상처와 위안의 기록을 담은 그림 에세이 〈바람에게도 고맙다〉를 출간했다. 시인은 오래 간직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도 고맙고 벅찬" 순간들을 노래한다. 고요히 날아올라 묵직하게 내려앉는 시인의 독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서로를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이 된다. 정목 스님, 유경희 미술평론가가 추천의 글을 붙였다. 정목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세상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이 어디 있으며 서로 도움 받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눈을 감고 숨 쉬어 본다. 온몸이 더 먼저 느낀다. 존재한다는 것의 고마움을."이라고 평한다.

김재진 시인에게 슬픔과 상처는 아름다움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는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고,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며 40년이 넘는 시간 글을 썼다. 삶의 상처를 가장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길어 올린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며 '가장 오랜 시간 읽히고 사랑받은 시집'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후 벽에 입을 그려 달라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청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인은 첫 개인전을 열어 '삶을 위로하는 그림'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전시한 그림이 전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책은 시인이 쓰고 그린 134편의 글과 45점의 그림을 섬세하게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무구한 아이처럼, 맹렬한 청년처럼 그림과의 사랑에 푹 빠져" 그려낸 그의 그림은 한계 없는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증명하듯 눈부신 색채를 뽐내며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 일렁이게 한다. 슬프기도 때로는 그저 기쁘기도 했던 삶에게 고마움을 담아, 자신과도 닮은 자유로운 바람을 빌려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으로 전한다.



그림의 제목은 〈달의 사랑〉. 사랑이란 기울다가 차오르는 달과 닮았다는 게 저자의 설명.

삶을 위로하는 저자가 그림으로 전하는 희망메시지 가득
삶의 상처 가장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길어 올린 작품 다수
저자, 깨어 있는 모든 삶 향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 보낸다

마음의 폐허에 다시 샘이 솟을 때까지…

시인의 그림에서는 유달리 '밝은 달'이 자주 모습을 보인다. 들판에 누운 채로 바라보기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유로이 날아 향하는 대상이기도 한 이 달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모든 존재를 고루 밝게 비춘다. 시인은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인생이라 해도" "앵콜 한 번 받지 못한 객석의 삶이라도"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힘주어 말하며, 빈 몸으로 울고 있는 수많은 삶들을 묵직하게 위로한다. 삶은 때로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홀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때도 있지 않냐"며 자기 몫의 생을 버텨내는 이들을 고요히 응원한다. 시인이 하는 일, 그는 이렇게 정의한다. "마음의 폐허에 다시 샘이 솟고, 새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의 시에는 슬픔과 상처에 매달려 있던 마음을 쉬게 만드는 힘이 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굴곡 많은 인생에선 배울 것이 많으니, 실패를 삶의 방향을 수정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 인생 나침반 삼아 남은 삶을 향해 걸어가자며, 우리의 삶을 빛나는 달에게로 이끈다.

사랑에 의해 세상은 유지 된다

시인은 깨어 있는 모든 삶을 향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 그에게는 "개도, 고양이도, 들판의 풀과 꽃, 소낙비"도 살아 있는 것들로, 모두 "슬픔을 멀리하고 행복"을 구하는 존재이다. 시인은 "미움과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서 아픔을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생명력을 강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함께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아니라 마음에 '거인'이 있는 강인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시인을 따라 두려움 없이 훨훨 세상 위로 날아가자. 슬픔도 아픔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있는 삶이라는 달을 향해. 겨울 시련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롭게.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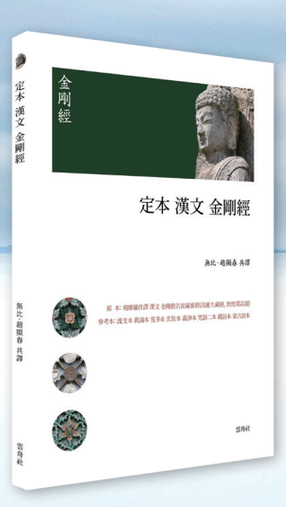
주저앉는 순간, 바닥을 하나의 에너지로 삼아 솟아오를 수 있다면 무너질 사람은 없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 내딛으라는 말이 있지만, 물러서려 해도 물러설 곳 없는 위기의 감정이 에너지로 바뀌어 다시 한 번 치솟을 수 있는 힘이 바닥엔 고여 있다. 〈바닥〉중에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정의 물결이 지나간 뒤 깨닫는다. 상처 또한 마찬가지다. 상처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상처에도 향기가 있다. 〈상처의 향기〉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가 꼭 최선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이다. 혼탁하던 물도 진흙이 가라앉은 뒤 깨끗해지듯 지금 겪는 혼돈 또한 스스로를 정화하는 진흙과 같다.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둥근 평화가 찾아온다. 〈둥근 평화〉중에서

인생은 늘 위안받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받아온 그 많은 위안을 돌려줄 생각보다 위안 받을 그 무엇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기만 한다. 꽃들에게 받은 위안, 나무에게 받은 위안, 강이나 산으로부터 받은 위안, 알고 보면 우리가 받은 위안은 도처에 널려 있다. 〈위안〉중에서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교감한 정본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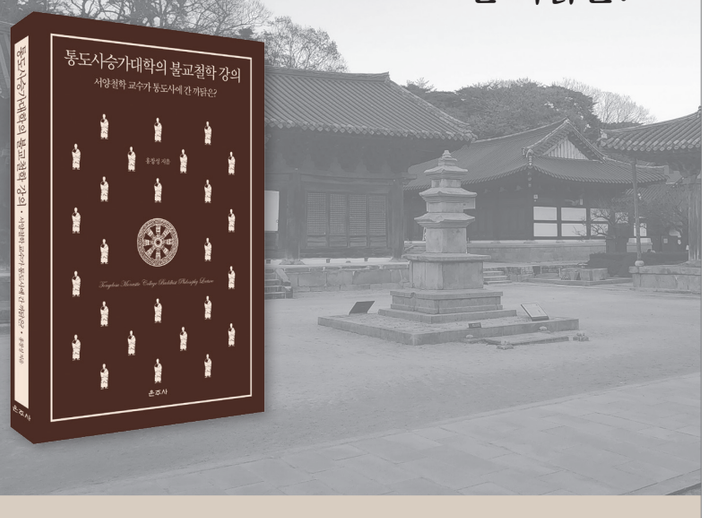


定本 漢文 金剛經

구마라집 본을 저본으로 하고, 유지본, 진제본, 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범어본 등을 참고하여, 의미상 가장 적절한 한자와 어휘를 채택하여 완성한 '정본 금강경!'

무비 · 조현춘 공역/크라운판/184쪽/값 12,000원

서양철학 교수가 통도사에
간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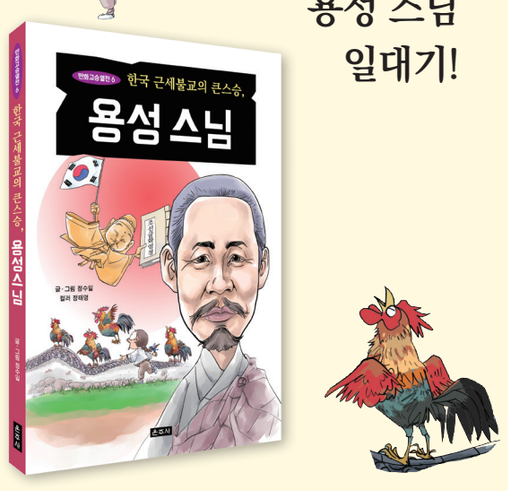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